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고 정 희

2019년 8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박 정 환

고 정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고정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6월

<국문초록>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고 정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시기는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또래를 선택하기 때문에 또래의 인정과 수용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관계를 바탕으로 또래관계와 관련된 변인인 진로성숙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위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주시 동지역 3개 일반계 고등학교와 제주시 읍면지역 1개의 특성화고, 그리고 서귀포시 동지역 1개의 특성화고 1학년 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래관계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Palker와 Asher Ladd, Kochender와 Coleman이 사용한 또래관계 척도검사를 정미경이 수정·보완하고 재구성한 검사인 ‘또래관계 척도검사’를 사용하였고,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작하고 한국적성연구소에서 발행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김유식, 이솔잎, 최재필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는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관계 5가지 하위요인들 중 경쟁을 제외한 4가지 하위요인이 모두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자아존중감이 고등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것은 또래관계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감은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작용을 밝힘으로써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입학 초기의 학생들이 지각한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상담적 개입의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또래관계,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5
3. 연구모형	6
4.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8
1. 또래관계	8
1) 또래관계의 개념	8
2) 또래관계의 선행연구 분석	8
2. 진로성숙도	10
1) 진로성숙도의 개념	10
2) 진로성숙도 이론	11
3)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
3. 자아존중감	14
1) 자아존중감의 개념	14
2) 자아존중감의 선행연구 분석	15
4. 또래관계,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의 관계	16
1)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16
2)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17
3)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19
III. 연구방법	21
1. 연구대상	21
2. 측정도구	23
1) 또래관계 척도	23

2) 진로성숙도 척도	24
3) 자아존중감 척도	25
3. 자료 분석	26
IV. 연구결과 및 해석	27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27
2. 또래관계,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29
3.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1
3-1. 도움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3
3-2. 친밀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5
3-3. 인정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7
3-4. 갈등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9
V. 논의, 결론 및 제언	41
1. 논의, 결론	41
2. 제언	44
참고문헌	45
Abstract	51
부록(설문지)	54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22
표Ⅲ-2 또래관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3
표Ⅲ-3 진로성숙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4
표Ⅲ-4 자아존중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5
표Ⅳ-1 주요변인의 기술 통계	28
표Ⅳ-2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30
표Ⅳ-3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1
표Ⅳ-4 도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3
표Ⅳ-5 친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5
표Ⅳ-6 인정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7
표Ⅳ-7 갈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9

그림 목 차

그림 I -1 연구모형	6
그림 IV-1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2
그림 IV-2 도움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3
그림 IV-3 친밀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5
그림 IV-4 인정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7
그림 IV-5 갈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이다. 이때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청소년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은 가능성들과 직면하게 된다(남동하, 2006). 또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흥미, 성격, 능력, 적성, 가치관 등을 파악하고 미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2013년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고민이 3배 이상 늘어났고, 2016년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의 28.9%는 ‘직업’으로, 성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빠르게 변해가는 직업세계에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실정이다.

21세기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말한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을 변화시킨 대혁명이라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Gig 경제(Gig Economy)로 인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형태의 직업은 사라질 것이고 미숙련, 저임금 업무뿐만 아니라 재무관리, 의사, 고위 임원까지도 자동화 될 수 있다(맥킨지 보고서, 2015)고 한다. 또한 2020년까지 사라지는 일자리는 510만개로(세계경제포럼, 2016),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직업의 수명은 짧아져 일생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3-4개의 직업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이다. 또한 갈등 속에서 문제해결력을 키우며, 도전정신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교육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입시를 위주로 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단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대학’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성적에만 초점을 맞추어 미래를 결정짓고 있다.

결국,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잘못된 제도적 교육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에 맞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미 대학에 진학한 후 혹은 직장인이 되고 난 후에 하며, 그제야 새로운 진로 설정을 하게 되어 많은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소모와 시행착오를 겪게 되거나 아예 자신이 원하는 진로는 포기한 채 직업 생활을 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반드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함께 진로를 탐색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제적인 자립과 함께 주체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자기 삶에 대해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진로에 관한 행동과 의식발달을 돕는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진로 준비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발달과정을 거쳐 성숙되어 가는데, 이러한 진로나 직업에 관한 의식의 발달을 진로성숙이라고 한다. 진로성숙도는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겪는 경험과 직업에 대한 지식이나 기대감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진로선택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며 계획 수립, 직업 선호에 대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이기학, 1997). 즉,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과정 속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 위해 청소년기에 올바른 진로성숙도를 형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과 더불어 개인마다 진로성숙개념이 발달하고 확립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진로에 대한 더욱 깊은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 2014년에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한 명 이상의 진로교사 배치가 완료되고,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청소년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 교육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자신의 객관적인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한 간접경험을 통해 진로성숙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청소년이 자주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2013).

청소년의 바람직한 미래 설계를 위해 필요한 진로성숙도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행해져 왔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크게 개인, 가족환경, 또래환경 등이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환경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태도(정미경, 2002; 김현주, 2013; 황슬기, 2016)나 또래환경과 관련된 또래관계, 그리고 개인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가 많다(정선아, 2012; 차정원, 2014; 황슬기, 2016).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나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또래환경에 속하는 또래관계 변인과 개인에 대한 태도인 자아존중감 변인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래관계란 나이나 수준이 비슷한 무리들의 관계로,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발달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동기와는 달리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고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하려는 의지가 강해지면서 또래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몰입하는 발달 특성을 보인다(최정미, 김미란, 2003). 또 또래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면서 또래와의 소통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한다. 정옥분(2008)은 수평적인 또래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이나 정보는 성인을 통해 얻어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래들과 진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렇지 못한 또래들에 비해 더 활발하게 진로 탐색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aerbel, 2002; 박미란, 이지연, 2010).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맺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고(이경희, 2011; 김은아, 2012; 이재성, 2012; 김효정, 2012; 안현자, 2008), 자아존중감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선아 외, 2012).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각각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로,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평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한다.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을 보면, 박종은(2007)은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권신영(2001)

은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관한 확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경희, 윤미현(2011)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의 적응과 함께 진로성숙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했다.

한편 유영미, 문승태(2002)는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애착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이는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것으로 자아정체감은 간접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복원(2008)도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이며 부모애착과 친구 애착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중간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강석기(2003)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1차적 사회 환경인 가정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2차적 사회 환경에서는 또래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높은 관련성이 있어, 자아존중감과 가족환경, 또래환경 요인은 서로 관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족환경, 또래환경,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의 관련성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진로에 대한 올바른 탐색을 위해 제주도 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제주도 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 설 1.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가 설 2.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 설 2-1.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도움(또래관계 하위요인)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 설 2-2.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친밀(또래관계 하위요인)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 설 2-3.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인정(또래관계 하위요인)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 설 2-4.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갈등(또래관계 하위요인)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 연구모형

‘가설 2’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탐색한 후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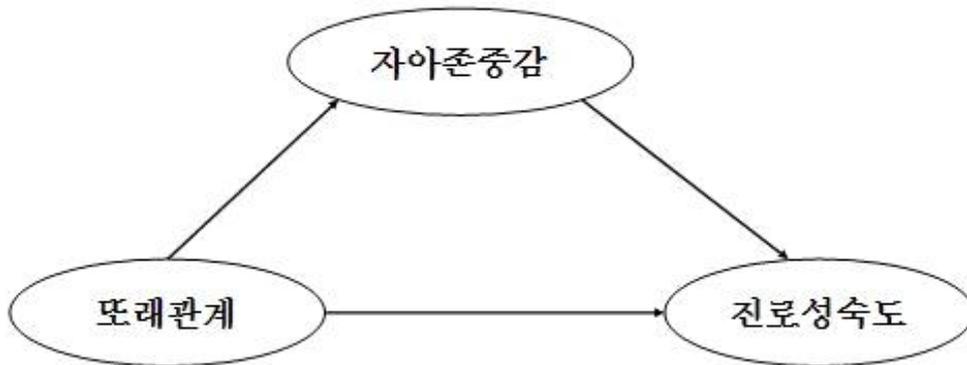


그림 I-1 연구모형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또래관계,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또래관계

또래관계란 나이나 수준이 서로 비슷한 무리들의 관계를 의미한다. Perry & Bussey(1984)는 또래를 연령, 성별, 학년에서 비슷한 수준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비슷하고 사회적으로 동일시되며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의 의미하며, 그들이 맺는 관계를 또래관계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lker와 Asher, Ladd, Kochender와 Coleman(1996)이 사용한 또래관계 척도 검사를 정미경(2002)이 수정, 보완하고 재구성한 검사인 또래관계 척도검사를 사용하여 또래관계의 척도를 측정하였다.

2)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이란 진로의 발달적 관점에 기초하는 개념으로 장석민(1991)은 진로성숙을 “자아와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직성연구소에서 발행한 진로성숙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3)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평가적 요소로서 “개인이 판단하는 또는 자신 스스로에 대해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urbow & Somefield(1991)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와 김희정, 정다운(2011)의 설문지를 김유식, 이솔잎, 최재필(2016)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또래관계

1) 또래관계의 개념

또래(peer)라는 말은 비슷한 연령의 친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친구는 아니지만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래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Garvey(1984)는 또래를 ‘대등한 위치를 가진 동반자’라고 하였으며, Lewis & Rosenblum(1975)은 ‘사회적으로 동등한 사람’ 또는 ‘일시적으로라도 행위의 복잡성 정도가 유사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한 Perry & Bussey(1984)는 또래를 연령, 성별, 학년에서 비슷한 수준과 특성을 갖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비슷하고 사회적으로 동일시되며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며, 그들이 맺는 관계를 또래관계라고 하였다(김성화, 2015). 박애경(2010)은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를 또래 집단에서 수용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호간의 역동적 관계 및 수평적인 위치의 관계로 정의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또래관계란 비슷한 연령대에 속하며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비슷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며 사회적으로 동일시되고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며 그들이 맺는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또래관계의 중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달리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또래문화를 누리게 되면서 사회적인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또래들의 인정과 소속감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소통하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규정하고 정의해 나가며,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알아가기도 한다. 홍석자

(2017)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자아정체감의 확립, 사회성의 발달, 성격 형성과 같은 발달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 수준이 달라지므로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크다.

Erwin(1998)은 이러한 또래관계가 평등과 힘의 수준에서 다른 인간관계와 구별된다고 하였다. 즉, 또래관계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성인들의 상호작용과는 달리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갈등을 해결하는 동일한 수준에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공평성과 상호성에 입각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김진경, 2002). 또한 Piaget(1965)는 상호성과 동등성에 기반하여 서로 규칙을 만들어나감으로써 자율적인 도덕성 발달을 돕기도 한다(정성예, 2006, p16, 재인용). 넓은 의미로 본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해낼 수 있는 또래간의 도움, 인정, 친밀, 자기표현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라고도 볼 수 있다(정미경, 2002).

따라서 또래는 다양한 사회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심리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상이며,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점차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다른 관계에 비해 자기 발달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이호선(2001)에 의하면 비슷한 연령의 또래 집단은 아이들 행동의 척도와 모범이 되고, 아이들의 사회성과 성격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신체적·심리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며 부모와 가족의 품을 벗어나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정미경, 2002).

위의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기에는 정서적으로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또래를 선택하므로 또래의 인정과 수용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또래관계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래들과의 공통의 관심사를 통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과 가치관, 행동 등이 비슷한 또래를 선택하거나 반대로 자신과 다르거나 부러움의 대상을 또래로 선택하여 또래관계를 형성한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환경, 즉 또래압력, 부모압력, 자신의 가치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내면갈등이 심한 시기인 만큼 청소년들이 또래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의 특징과 문화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진로성숙도

1) 진로성숙도의 개념

진로성숙도란 자신의 연령 수준에 주어지는 진로선택이나 진로관련 의사결정 등 진로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정도를 의미하는데(Crites, 1971; Gribbons, Lohnes, 1964; Hoyt, 1977; Super, 1974; 조미형, 최상미, 엄태영, 2006, 재인용), 진로발달 이론가들에 의해 ‘진로태도성숙’ 또는 ‘진로의식성숙’ 등 다양한 명칭과 함께 정의되어 왔다(Naidoo, Boowman, Gerstien, 1998; Stead, Watson, 1998; 최수미, 2009).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Super(1953)는 진로성숙을 현재 보이고 있는 개인의 진로 행동이 그 개인 연령층에게 기대되는 진로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의해 평가되는 것으로써 그 일치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이라 하였으며, Crites(1978)는 Super의 진로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진로성숙을 진로선택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의 상대적 이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Hoyt(1977)는 진로성숙도를 개인이 자아와 직업세계를 잘 이해하고 이 둘을 통합할 수 있는 준비의 정도라 정의하였으며, Betz(1998)는 개인의 진로발달 단계에서 개인이 직업적 발달과업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Fouad(1988)는 진로성숙을 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서 ‘진로성숙이란 개인이 자신의 연령 수준에서 주어지는 진로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라고 정의하였다(김봉환 외, 2010, p.86,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김서연(2004)은 진로성숙도를 자아와 일, 직업세계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하고 조정해나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이라 정의하였으며, 박미란, 이지연(2010)은 진로성숙을 동일한 연령집단에서의 상대적 진로발달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장석민(1991)에 의하면 진로성숙을 “자아와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

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하였다.

이와같이 진로성숙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정의해 보면 진로성숙도란 ‘동일한 연령이나 발달단계에서 자아와 일,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해 나가는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진로성숙이론

진로발달 혹은 진로성숙 이론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Super(1957)의 진로발달 이론이다. Super의 이론은 Ginzberg와 같은 동시대 이론가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Ginzberg(1951)에 의하면 진로선택이란 단일한 의사결정이 아니며 일종의 발달과정으로서 개인의 희망과 직업가능성 간의 타협으로 보았으며, 진로발달과정을 3단계, 즉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에 이르는 20대까지로 파악하였다. 개인의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요인으로 개인적 가치, 정서적 요인, 교육수준, 환경 등의 4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Super는 ‘전생애이론’으로 진로발달을 전생애, 생애역할, 자아개념 등 크게 세가지 개념으로 이론화하였다. 전생애 발달이론이란 진로를 인간의 전생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게 되는 발달과업을 중심으로 성장기(Growth Stage), 탐색기(Exploration Stage), 확립기(Establishment Stage), 유지기(Maintenance Stage), 쇠퇴기(Decline Stage) 로 진로발달 단계를 나누어 설명하였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탐색기(14세~24세)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주요한 진로발달 과업이다. 이 시기는 다시 결정화기, 구체화기, 실행기의 하위발달과업 단계로 나뉘며 결정화기에는 직업에 대한 과업을 보다 분명히 하고, 구체화기에는 고려해 왔던 직업들 중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요구한다. 실행기는 선택한 분야를 향하여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발달과업이 된다.

Super의 초기 발달이론은 이와 같이 성장기-탐색기-확립기-유지기-쇠퇴기 등 5단계의 순환모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지만 후기 진로발달이론에서는 탐색기-확립기-유지기에 이르는 성인기 진로발달이론이 많이 수정되었다. 예컨대 후기 진로발달이론에서 성인기의 진로발달은 생물학적 발달, 즉 연령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어진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얻어진 심리적 변화가 반드시 지속되지는 않으며 진로발달 단계에서의 전환의 시점은 연령 보다는 개인의 성격과 생애환경의 기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Super, 1990).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의 개념은 Super의 진로발달 이론의 핵심적 개념 중의 하나로, 진로성숙의 정도를 ‘진로발달의 연속선 상에서 개인이 도달하는 위치’(Super, 1965)로 정의하고 진로계획, 직업탐색, 의사결정,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 등을 진로성숙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진로성숙의 개념을 성인에게 적용하는 문제에서 성인기의 진로발달은 개인마다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진로성숙 대신에 진로적응 개념을 사용하였다. 진로적응의 개념은 각 개인이 일의 세계와 자신의 개인적 환경 사이에서 추구하는 균형에 중점을 맞춘다(김봉환 외, 2010).

Crites(1978)에 의하면 개인의 진로발달 수준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Super의 이론에 바탕을 둔 Career Maturity Inventory(CMI; Crites, 1978) 모형을 근거로 개인의 진로발달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장석민, 1991)에서 제작한 진로성숙도검사가 있다. 배소정(2004)에 의하면 이 검사는 국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이며 인지적 영역으로서의 능력요인과 정의적 영역으로서의 태도 요인에 관한 하위척도를 가지고 있다. 김봉환(1997)은 진로성숙을 측정하는 기존의 도구들이 인지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진로성숙의 행동적 측면을 측정하는 진로준비행동검사를 개발하였다. 안창규(1998)는 초등학생용 진로발달검사를 개발하였고 임언 등(2001)은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를 개발하였다.

3)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만이 아니라, 가족요인, 친구요인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변화한다.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한데 정미나, 노자은(2016)은 개인관련 변인, 진로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 학교관련 변인, 친구관련 변인, 사회적지지 변인과 같이 6가지 변인으

로 나누어 메타분석 연구를 하였다.

먼저 개인관련 변인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요인들로는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정서조절능력 등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진로관련 변인에서는 진로정체감, 진로포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의 변인들이 있으며 이들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다양한 가정관련 변인들이 있으나 대표적인 요인들로는 부모애착,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 부모의 진로지지 등이 있으며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가족체계, 경제수준, 가족 건강성 등 가족 기능과 관련된 변인들도 진로성숙도의 관련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학교관련 변인에서 진로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성적, 교사애착, 교사지지, 학교생활 적응 등이 있다. 진로 탐색을 위한 기초능력이 배양되는 학교는 진로성숙과 관련성이 높은 환경으로 볼 수 있으나 진로성숙과 학교환경과의 관계에서 다른 변인에 비해 다양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청소년에게 사회성과 자신감 같은 역량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인 친구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애착, 친구지지, 등이며 친구애착과 친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대상을 중심으로 중요한 타자들의 직,간접적인 지지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서, 정보, 물질 등의 평가적 지지로 측정되는데 대상과 내용 중심으로 측정된 사회적 지지는 진로성숙도와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

3.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을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65).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보편적 정의가 없어 학자마다 다른 의미로 정의될 뿐만 아니라 자아개념, 자기수용, 자아정체감, 자신감, 자기존중, 자아가치, 자기사랑 등의 서로 다른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다(김경수, 김화경, 2011).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Brown(1952)은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를 하는 과정이나 자신에 대한 개인적 수용이라 하였으며, Berger(1955)는 자아존중감이 가치 있는 개체로서의 자신에 대한 배려이자 타인에 대한 배려이면서 삶을 극복해나가는 개인의 능력이라 정의하였다(김경수, 김화경, 2011, p148, 재인용).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은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로서 자기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거나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총체적 의미로써 기술한 Rosenberg(1965)는 평가적 요소로서의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판단하는 또는 자신 스스로에 대해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평가”라고 정의하였으며, 감정적 요소로써 자아존중감은 “높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유능감 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아 거부, 자아 불만족 및 자아 비난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였다.

Maslow(1970)는 자아존중감을 기본 욕구와 자아실현 사이의 연계점으로서 언급하고 있다. 그는 자아존중감을 내적 자아존중감과 외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였으며,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의해 모든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외적 자아존중감, 스스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것을 내적 자아존중감이라 하였다.

지금까지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를 말하며 나와 타인에 대한 배려면서 삶을 극복해나가는 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아존중감의 선행연구 분석

Cooley(1902)는 자아존중감이 본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 즉 부모와 가족, 친구와 교사 또는 지역사회에 의하여 형성 발달 되고 또한 변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은 주위 사람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게 되며 그 중에서도 부모, 또래, 교사가 중요한 타인으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자신이 중요한 타인에게 긍정적인 판단을 받고 있다고 지각할 때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며 반대로 열등하게 평가받고 있다고 지각할 때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 즉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정확한 자기평가나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에 대해 부적절한 인식이나 평가를 하는 청소년은 진로와 관련하여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권은영(2008)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잘 인식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Baumeister와 Tice(1985)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이나 좋은 자질에 주목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반면,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결함이나 좋지 못한 자질에 주목한다(박은혜, 2006, p.6, 재인용)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욕구를 충족시킨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4. 또래관계,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1)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

청소년기 이전에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이자 위대한 존재였다고 한다면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고 또래들과 섞이고 싶은 욕구가 부딪히며 갈등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또래들의 인정과 소속감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또래들과 비슷해 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또래문화를 누리려 한다. 그러므로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미나, 노자은(2016)에 따르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친구관련 변인에서 친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청소년에게 사회성, 자신감과 같은 역량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인 친구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애착, 친구지지 등의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친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보고된다고 하였다.

요즘 청소년은 진로선택에 있어서 주로 부모의 의견에 따르던 과거와 달리 또래의 의견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높다(김경주, 송병국, 2011). 청소년기는 학교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며 사회화 경험이나 발달에 미치는 또래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또래들과 진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더 활발하게 진로탐색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Baebel, 2002).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오정아, 남부현(2014)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친구관계와 진로태도성숙의 하위변인과의 관계에서 친구관계가 진로준비성과 독립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표하였다. 또 청소년이 친구와 안정된 애착을 보일수록 진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의사소통에 관한 준비도와 진로결정성을 위한 주체성, 독립성, 확신성이 높고 진로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다고 하였다(이경희, 윤미현, 2011). 친구 사이에서의 애정적 관계는 진로성숙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이는 친구 사이에서 얻는 정서적 안정감이나 정보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효정, 2012).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은 학생은 또래로부터 대인관계에서의 유능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경험하며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게 된다(하성현, 2006; 안현자, 2008). 또한 조미형, 최상미, 엄태영(2006)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또래애착 관계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 또래애착이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안정된 또래관계는 대인관계에서의 만족감을 주고 진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의사소통에 대한 준비도와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높으므로 자신의 미래나 진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진로에 대한 목적도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가정하여 고등학생의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2)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일방적인 애착관계와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을 향한 수평적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지며 또래와 상호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미라(2011)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높고 또래관계에서도 타인에 대해 이해능력이 높아 능동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감을 알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사회성이 더 높고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덜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은미, 여태철(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보다 또래의 영향이 자아존중감 발달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민정(2016)에 따르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들이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며, 대부분의 상호작용이 자신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결과를 보면 이현주(2015)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가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 아동이 가정과 학교 및 타인의 친구로서 자신을 유능하게 여기고 자신을 높게 평가할수록 또래관계가 원만하다고 하였다. 또 김수빈(2014)의 연구에서도 자신을 얼마나 가치있게

혹은 긍정적으로 지각하는지가 또래관계의 질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만족도, 심리적 안정, 적응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주은지, 2007), 또래로부터 받게 되는 사랑과 도움, 우정 및 지지는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된다(이복원, 2008). 따라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김정후, 2012), 친구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장을 잘하며 불안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 2011)

한편, 또래 괴롭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또래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한 청소년은 우울감 및 불안의 증가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므로(도현심, 양원경, 1999), 또래관계의 부정적 경험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심각성이 주목되는 요인이다(최미경, 도현심, 1999). 그리고 또래와의 고립된 경험은 건전한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막는 열등감을 초래한다(Sullivan 1953; 강효숙, 2003, p.23, 재인용).

부모는 아동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만 또래집단은 아동의 각 발달 단계마다 접촉하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역량지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주리, 1994). 특히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가족 외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받아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정미경, 2002). 박순정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양지희(2004)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을 관련변인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한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향상되면 또래관계도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기에 얼마나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나아가 성인기가 되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고등학생의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

발달적 관점에서 진로성숙은 생애 과정 전체에서 직면하게 되는 직업 준비도와 대처 행동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Super, 1957). 진로성숙은 직업세계 및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선택 및 의사결정 능력의 통합적 의미를 가진다(김성아, 2012).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학교와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 및 변화한다.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을 개인, 진로, 가정, 학교, 친구 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개인 관련 변인이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나타내었고, 개인 관련 변인 중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나타내었다(정미나, 노자은, 2016).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 간의 국외연구에서(Super, 1963)는 자아존중감은 사람이 진로환경을 인식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성숙한 진로태도의 발달을 촉진시킨다(Korman, 1970).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공한 사람들의 태도와 유사한 태도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최수미, 2009, p.2258, 재인용). 또한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균형이론을 통해 설명한 Korman(1996)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업 선택을 통해 인지적 균형을 유지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무관한 직업 선택을 통해 인지적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였다(이경희, 윤미현, 2011, p.178, 재인용).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진로 태도 성숙의 변화 및 이들의 종단적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패널자료(KYPS) 중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4년 동안의 자료를 활용한 최수미(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 증가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형규(2008)의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혜(2007)와 이복원(2008)도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청소년의 진로지도에 있어

자아존중감 향상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권은영(2007)은 자아존중감이 학교 생활의 적응과 더불어 진로성숙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이외에도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들이 많다(오석영, 2012; 윤초희, 한수연, 2015).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해 확고하게 결정할 수 있는 진로 결정성이 높게 나타났고, 진로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며,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기 존중감을 갖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3개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2개교의 남, 여 1학년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학생들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는 1학년 부장 선생님들께 연구의 취지 및 실시방법을 안내하여 담임선생님이 실시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 15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설문시간은 약 20~2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7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무응답하거나 불성실하게 체크 된 27부를 제외하고 총 45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학제편성 기준 17세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기로 승급하는 시기로 고등학교 1학년은 청소년기 후기에 해당한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학교, 즉 일반계고나 특성화고 그리고 전문계고를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참여했고 그 결과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시기는 중학교 시기와는 달리 부모로부터의 영향이 크게 감소하고 거의 성인의 위치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되는 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450)

	구분	N(=450)	구성비율(%)
성별	남	214	47.6
	여	236	52.4
학년	1학년	450	100
성적	상	62	13.8
	중	247	54.9
	하	141	31.3
희망진로	4년제 대학교	227	50.4
	전문대	53	11.8
	취업	112	24.9
	기타	58	12.9
학교유형별	남고	97	21.6
	여고	96	21.3
학교종류별	남녀공학	257	57.1
	일반계고	286	63.6
	특성화고	164	36.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남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50명 중에서 남학생 214명(47.6%), 여학생 236명(52.4%)이며 일반계고 286명(63.6%), 특성화고 164명(36.4%)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학교성적은 상, 중, 하로 구분했을 때 중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54.9%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의 희망진로를 묻는 질문에 50.4%가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할 것이라고 답했고, 취업이 24.9%를, 그리고 기타(12.9%)에서는 취업 후 진학이나 창업이라고 답한 경우가 있었다.

2. 측정도구

1) 또래관계 척도

Palker와 Asher, Ladd, Kochender와 Coleman(1996)이 사용한 또래관계 척도 검사를 정미경(2002)이 수정, 보완하고 재구성한 검사인 ‘또래관계척도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자기보고형 검사로, 자신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것을 묻는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은 도움, 친밀, 인정의 긍정적 특성과 갈등, 경쟁의 부정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식 척도로 구성된다. 긍정적 특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 특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또래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미경(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 구성과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Ⅲ-2 또래관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α)
긍정적 특성	도움	6 1, 3, 5, 7, 9, 11	.84
	친밀	6 13, 15, 16, 18, 20, 22	.86
	인정	5 24, 26, 28, 30, 32	.82
부정적 특성	갈등	9 2*, 4*, 6*, 8*, 10*, 12*, 33*, 34*, 35*	.82
	경쟁	9 14*, 17*, 19*, 21*, 23*, 25*, 27*, 29*, 31*	.85
전체	35		.89

* 역채점 문항

2) 진로성숙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장석민, 1992)이 제작하고 한국적성연구소에서 발행한 진로성숙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진로성숙도 검사지는 진로에 관한 태도검사와 능력검사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태도검사의 하위변인인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 검사만을 실시하였다.

계획성이란 자기의 진로를 선택, 결정하기 위하여 많은 기초 자료들과 정보들을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집, 해석하고 그와 더불어 자신의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해 보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독립성은 자신의 진로선택이나 탐색, 결정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독자적, 의존적인 결정을 하는 비중이나 정도를 의미한다. 결정성은 진로선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인 적성, 능력, 흥미, 성격, 환경 등으로 고민하거나 망설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택이나 결정의 정도가 확실한 정도를 의미한다.

채점 방법은 ‘예’에 응답하면 1점, ‘아니오’에 응답하면 2점을 부여한다. 진로성숙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를 보면 ‘진로선택은 스스로 하기 보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다.’, ‘나는 수많은 직업 중에서 어느 것이 나에게 적합한지 알지 못한다.’ 등이 있다. 역채점 문항(5, 6, 7, 11, 14, 19, 27, 29, 31, 32, 33)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Ⅲ-3 진로성숙도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α)
계획성	13	1, 4, 7*, 10, 19*, 21, 24, 25, 27*, 28, 31*, 33*, 36	.59
독립성	13	2, 5*, 8, 11*, 13, 14*, 17, 20, 23, 26, 29*, 34, 35	.60
결정성	10	3, 6*, 9, 12, 15, 16, 18, 22, 30, 32*	.65
전체	36		.76

* 역채점 문항

3)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Curbow & Somefield(1991)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와 김희정, 정다운(2011)의 설문지를 김유식, 이솔잎, 최재필(2016)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은 긍정자아존중감, 부정자아존중감의 2개로 구성하였으며 총 8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김유식, 이솔잎, 최재필(2016)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하위요인별로 산출하여 긍정 자아존중감 α =.77, 부정자아존중감 α =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긍정자아존중감 α =.90, 부정자아존중감 α = .92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4이다.

표Ⅲ-4 자아존중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α)
긍정자아존중감	4	1, 2, 3, 4	.90
부정자아존중감	4	5*, 6*, 7*, 8*	.92
전체	8		.94

* 역채점 문항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해 응답 점수 범위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또래관계 척도의 하위변인과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또래관계의 하위변인들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 단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1단계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줄어들 때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종속변인에 대해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이며, 유의미한 경우에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다섯째, 또래관계와 또래관계 하위요인인 도움, 친밀, 인정, 갈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매개변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또래관계,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은 다음의 표 IV-1 과 같다.

주요 변인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점수를 보면, 또래관계의 전체평균은 3.58점, 진로성숙도의 전체평균은 1.75점, 자아존중감의 전체평균은 3.84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래관계의 하위변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도움($M=3.81$, $SD=.70$)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경쟁($M=3.38$, $SD=.77$)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의 하위변인 중 가장 평균이 높은 것은 독립성($M=1.81$, $SD=.14$)이고 가장 낮은 변인은 결정성($M=1.60$, $SD=.22$)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 중 평균이 높은 것은 부정자아존중감($M=3.94$, $SD=.96$)이고 낮은 것은 긍정자아존중감($M=3.74$, $SD=.91$)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Kline(1998)에 의하면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또래관계,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보면 왜도는 0.00에서 1.59의 범위에 있고, 첨도는 0.02에서 3.18의 범위에 속하므로 변인들의 분포가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IV-1 주요변인의 기술 통계량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또래관계	도움	3.81	.70	-.49	.72
	친밀	3.45	.91	-.45	-.11
	인정	3.55	.74	-.43	.80
	갈등	3.74	.62	-.43	.52
	경쟁	3.38	.77	.22	-.23
	전체	3.58	.49	-.00	.79
진로성숙도	계획성	1.79	.14	-1.30	1.81
	독립성	1.81	.14	-1.59	3.18
	결정성	1.60	.22	-.09	-.75
	전체	1.75	.12	-.64	.27
자아존중감	긍정자존감	3.74	.91	-.49	.02
	부정자존감	3.94	.96	-.69	-.09
	전체	3.84	.35	-.56	-.23

2. 또래관계,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래관계 하위변인(도움, 친밀, 인정, 갈등, 경쟁)과, 진로성숙도 하위변인(계획성, 독립성, 결정성), 자아존중감의 하위변인(긍정자아존중감, 부정자아존중감)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 전체와 자아존중감 전체($r=.310, p<.01$)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또래관계 전체와 진로성숙도 전체($r=.255, p<.01$)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성숙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r=.186, p<.01$)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또래관계의 하위요인 중 도움($r=.310, p<.01$), 친밀($r=.227, p<.01$), 인정($r=.322, p<.01$), 갈등($r=.230, p<.01$)은 자아존중감 전체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경쟁은 자아존중감 전체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또래관계가 서로 도움을 주고 친밀하고 인정적일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또래관계의 하위변인인 도움($r=.251, p<.01$), 친밀($r=.141, p<.01$) 인정($r=.177, p<.01$), 갈등($r=.188, p<.01$), 경쟁($r=.124, p<.01$)은 진로성숙도 전체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연구의 최종단계인 매개모형 분석에서는 상관관계가 확인된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또래관계 하위변인인 도움, 친밀, 인정, 갈등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IV-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N=450)

	1	1-1	1-2	1-3	1-4	1-5	2	2-1	2-2	2-3	3	3-1	3-2
1 또래관계	1												
1-1 도움	.739**	1											
1-2 친밀	.600**	.544**	1										
1-3 인정	.731**	.697**	.638**	1									
1-4 갈등	.748**	.421**	.133**	.365**	1								
1-5 경쟁	.577**	.095*	-.073	.064	.504**	1							
2 진로성숙도	.255**	.251**	.142**	.177**	.188**	.124**	1						
2-1 계획성	.245**	.276**	.210**	.234**	.161**	.024	.791**	1					
2-2 독립성	.169**	.146**	.027	.118*	.140**	.135**	.730**	.465**	1				
2-3 결정성	.167**	.153**	.089	.062	.127**	.117*	.745**	.369**	.241**	1			
3 자아존중감	.310**	.310**	.227**	.322**	.230**	.049	.186**	.191**	.113*	.120*	1		
3-1 긍정자존감	.257**	.311**	.268**	.342**	.144**	-.058	.131**	.137**	.052	.106*	.920**	1	
3-2 부정자존감	.315**	.263**	.155**	.256**	.277**	.143**	.211**	.214**	.155**	.117*	.929**	.709**	1

* p<.05, ** p<.01

3.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IV-3 과 그림IV-1 이다.

표IV-3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	또래관계→자아존중감	.096	47.713	.542	.078	.310	6.907***
2	또래관계→진로성숙도	.065	31.028	.066	.012	.255	5.570***
3	또래관계	.077	18.758	.056	.012	.218	4.557***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018	.007	.118	2.476*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회귀계수B(a)=.542		표준오차SE(a)=.078			
Z= 2.411*		비표준화회귀계수B(b)=.018		표준오차SE(b)=.007			

* p<.05, ** p<.01, *** p<.001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beta=.310$, $p<.001$), 이것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가정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또래관계는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beta=.255$,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를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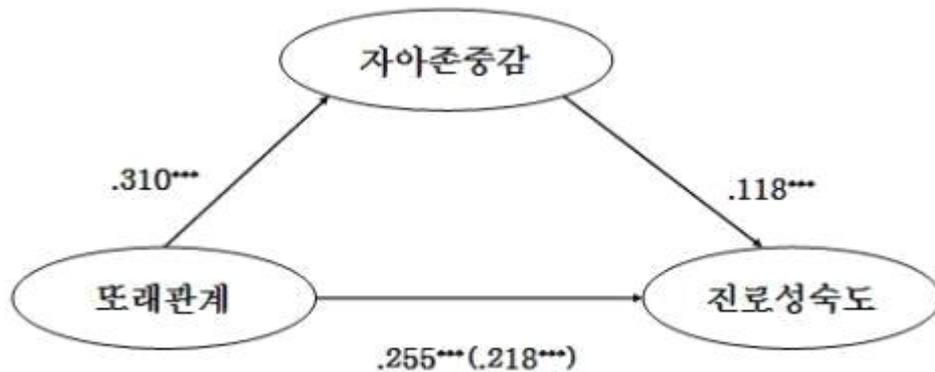


그림 IV-1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218, p<.001$), 매개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118, p<.05$). 이때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2단계 .255에서 3단계 .218으로 절대값이 줄어들었고,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에 제시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Z점수의 절대값이 1.96 이상일 경우 $P<.05$ 수준, 2.58 이상일 경우 $P<.01$ 수준, 3.30 이상일 경우 $p<.001$ 수준에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본다(Sobel, 1982). 본 연구에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2.411(p<.05)$ 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가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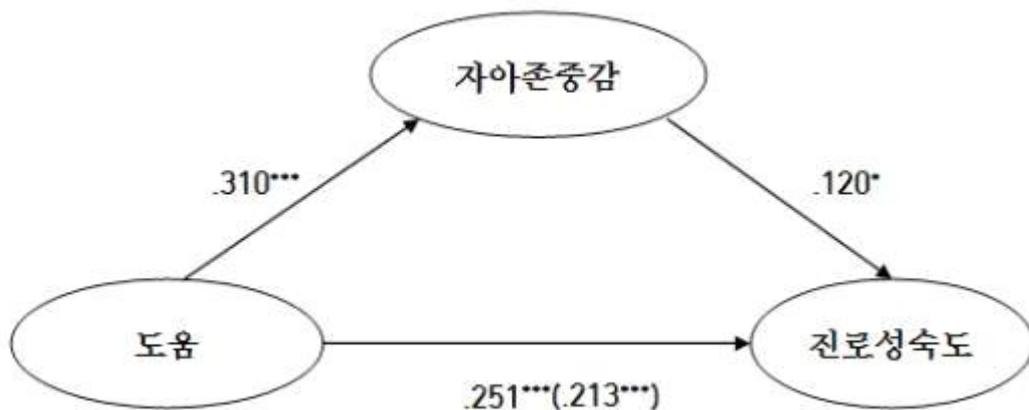
3-1. 도움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또래관계 하위변인인 도움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인 3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4, 그림IV-2와 같다.

표IV-4 도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	도움→자아존중감	.096	47.632	.383	.055	.310	6.902***
2	도움→진로성숙도	.063	30.000	.046	.008	.4251	5.477***
3	도움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076	18.311	.039	.009	.213	4.462***
				.018	.007	.120	2.504**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회귀계수B(a)=.383		표준오차SE(a)=.055			
Z= 2.412*		비표준화회귀계수B(b)=.018		표준오차SE(b)=.007			

* p<.05, ** p<.01, *** p<.001



그림IV-2 도움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또래관계 하위변인인 도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beta=.310, p<.001$), 이것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가정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도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움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beta=.251,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도움은 진로성숙도를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한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도움과 자아존중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도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213, p<.001$),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120, p<.05$) 이때 도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2단계 .251에서 3단계 .213으로 절대값이 줄어들었고, 도움이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이 도움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에 제시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IV-4에서와같이 Z점수의 절대값이 6.721로 $p<.001$ 수준에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도움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도움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는 ‘가설 2-1 도움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가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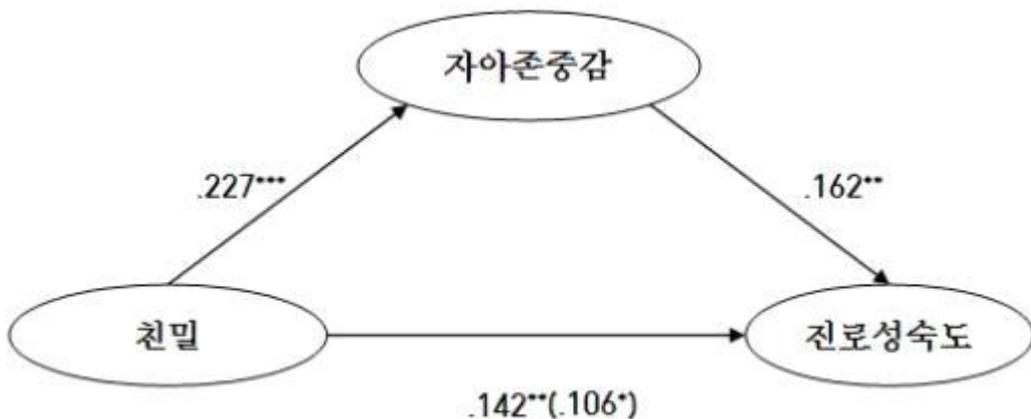
3-2. 친밀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또래관계의 하위변인인 친밀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 절차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5, 그림IV-3과 같다.

표IV-5 친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	친밀→자아존중감	.051	24.260	.214	.044	.227	4.925***
2	친밀→진로성숙도	.020	9.249	.020	.007	.142	3.041**
3	친밀 자아존중감	.045	10.561	.015	.007	.106	2.223*
	→진로성숙도			.024	.007	.162	3.414**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회귀계수B(a)=.214		표준오차SE(a)=.044			
Z= 2.802**		비표준화회귀계수B(b)=.024		표준오차SE(b)=.007			

* p<.05, ** p<.01, *** p<.001



그림IV-3 친밀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친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친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beta=.227, p<.001$), 이것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가정한다고 할 수 있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친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친밀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beta=.142, p<.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친밀이 진로성숙도를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할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친밀과 자아존중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친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beta=.106, p<.05$),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162, p<.01$) 이때 친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2단계 .142에서 3단계 .106으로 절대값이 줄어들었고, 친밀이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은 친밀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에 제시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에 의하면 Z점수의 절대값이 2.58 이상일 경우 $p<.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 $Z=2.802(p<.01)$ 이므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2-2.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하는 친밀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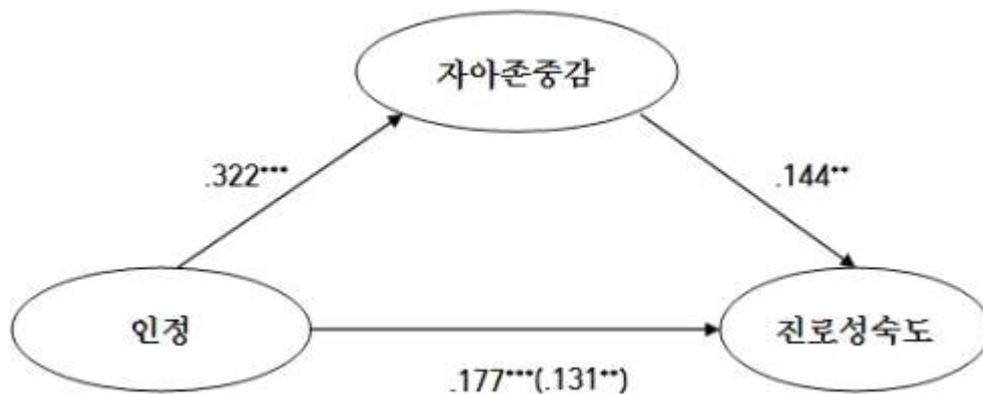
3-3. 인정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또래관계의 하위변인인 인정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 절차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6, 그림IV-4와 같다.

표IV-6 인정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	인정→자아존중감	.104	51.901	.372	.052	.322	7.204***
2	인정→진로성숙도	.031	14.502	.030	.008	.177	3.808***
3	인정 자아존중감	.050	11.734	.022	.008	.131	2.685**
	→진로성숙도			.021	.007	.144	2.952**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회귀계수B(a)=.372		표준오차SE(a)=.052			
Z= 2.76**		비표준화회귀계수B(b)=.021		표준오차SE(b)=.007			

** p<.01, *** p<.001



그림IV-4 인정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과정으로, 인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beta=.322, p<.001$), 이것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가정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인정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정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beta=.177,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정이 진로성숙도를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할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인정과 자아존중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인정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131, p<.01$), 매개 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144, p<.01$). 인정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2단계 .177에서 3단계 .131로 절대값이 줄어들었고, 인정이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이 인정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Z=2.76(p<.01)$ 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인정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2-3.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인정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가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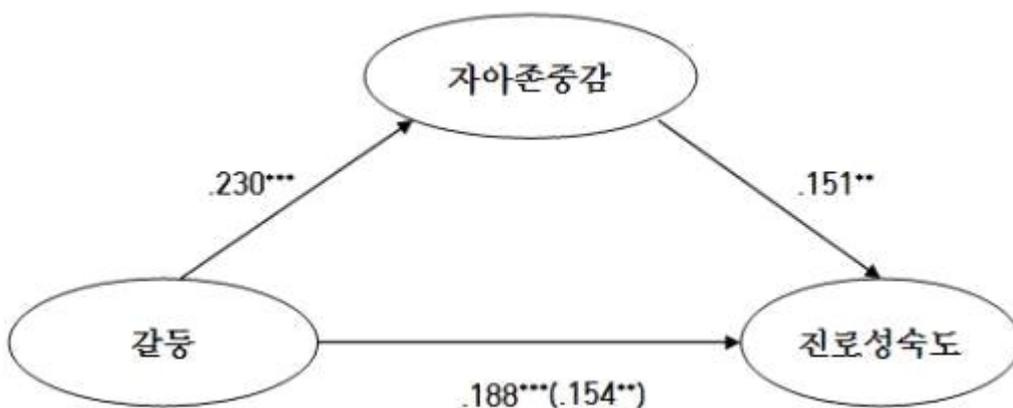
3-4. 갈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또래관계의 하위변인인 갈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 절차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7, 그림IV-5와 같다.

표IV-7 갈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	갈등→자아존중감	.053	24.916	.319	.064	.230	4.922***
2	갈등→진로성숙도	.035	16.431	.039	.010	.188	4.054***
3	갈등 자아존중감	.057	13.481	.032	.010	.154	3.253**
	→진로성숙도			.022	.007	.151	3.193**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회귀계수B(a)=.319		표준오차SE(a)=.064			
Z= 2.65**		비표준화회귀계수B(b)=.022		표준오차SE(b)=.007			

* p<.05, ** p<.01, *** p<.001



그림IV-5 갈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1단계는 독립변인이 가정된 매개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beta=.230, p<.001$), 이것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가정한다고 할 수 있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갈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갈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beta=.188, p<.001$), 이는 위의 회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갈등이 진로성숙도를 유의미하게 예언한다는 가정을 만족할 수 있다.

3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갈등과 자아존중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갈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154, p<.01$),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151, p<.01$). 이때 갈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2단계($\beta=.188$)에서 3단계($\beta=.154$)로 그 절대값이 줄어들었고, 갈등이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은 갈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Z 점수의 절대값이 2.58 이상일 경우 $<.01$ 수준에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본다(Sobel,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2.65(p<.01)$ 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갈등과 진로성숙도에 관계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므로 '가설 2-4.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갈등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 검증되었다.

V. 논의, 결론 및 제언

1. 논의, 결론

이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또래관계의 하위요인인 도움, 친밀, 인정, 갈등, 경쟁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래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진로성숙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로는 친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친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정미나, 노자은(2016)의 연구와 요즘 청소년은 진로선택에 있어서 주로 부모의 의견보다 또래의 의견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가 더 높다(김경주, 송병국, 2011)고 한 연구, 그리고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은 학생은 또래로부터 대인관계에서의 유능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인지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경험하며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하성현, 2006; 안현자, 2008)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도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대인관계에서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지게 되고 또래들과 진로에 대해 더욱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안정된 또래관계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둘째,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의 하위변인 중 긍정적 특성에 해당하는 도움, 친밀, 인정과 부정적 특성에 해당하는 갈등, 경쟁의 상관관계도 살펴보았다.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의 일방적 간섭에서 벗어나 또래들과의 수평적 상호관계 속에서 애착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때 또래로부터 받는 인정과 수용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하게 평가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능력이 발달한다. 또한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자기표현을 잘하고 대인관계 기술이 향상되며 자아존중감도 높아진다.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만족도, 심리적 안정, 적응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주은지, 2007), 또래로부터 받게 되는 사랑과 도움, 우정 및 지지 는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라고 하였고(이복원, 2008), 친구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장을 잘하며 불안감을 덜 느낀다(이경희, 2011)는 연구도 있다.

본 연구결과도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고 있다. 단 또래관계의 하위요인인 ‘경쟁’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의 조사 시기(3월 26일~4월 11일)가 새 학기 초로 신입생들은 새로운 학교와 학급이라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성적과 관련된 경쟁보다는 또래관계를 맺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여겨지며 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짐을 말해준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고, 직업결정력이 높으며,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좀더 분명한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권신영, 2001; 김정후, 2012).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도 높다(김해경, 2003; 권은영, 2008).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높은 수준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차정원(201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진로에 대해 분명한 태도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청소년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곧 미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관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일이다.

넷째, 또래관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또래관계의 하위변인인 도움, 친밀, 인정의 긍정적 또래관계는 자아존중감에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게 지각하며 자신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고 진로 결정성이 높게 나타나며 진로에 대해 뚜렷한 목적이 있다. 또 높은 자아존중감은 수시로 변하는 진로환경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성숙한 진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또래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학생들이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어, 고등학교 1학년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더불어 바람직한 또래관계 형성으로 인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자신감을 주고, 또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적극적 탐색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1학년 신학기 초에 더 많이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지각하는 또래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5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사를 한 시점이 신학기 초에 해당하는 3월 말과 4월 초에 이루어졌으므로 2학기 초, 혹은 학년 말 등의 여러 시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또래관계,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이 응답하는 과정에서 상황적 요인과 검사자 요인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응답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심층적인 탐색을 위해서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관찰법, 연구대상과의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을 살펴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심리적인 외적, 내적 변인들과 환경적, 사회적 변인을 포함한 여러 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석기(2003). 청소년의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0(3), 155-180.
- 강효숙(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신영(2001).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은영(2007).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태도와 학업성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수, 김화경(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0), 143-170.
- 김경주, 송병국(2011).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 요인 구조 분석. 한국직업교육학지, 30(2), 91-115.
- 김민정(2016).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 및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윤정, 손진희, 강혜영, 김지현, 유정이, 임은미, 손은령(2010). 진로상담이론. 학지사
- 김서연(2004). 중학생의 개인·사회적·심리적 변인과 진로성숙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빈(2014). 아동의 모애착과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질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현(2017).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화(2015). 중학생의 또래관계의 질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아(2012). 부모-자녀관계, 또래환경 및 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후(201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호(2014). 또래네트워크 특성과 성적에 따른 집단 간 적응 수준 차이.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경(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청소년의 의사소통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1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경(2003).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2012). 학습부진 아동과 일반아동의 진로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동하(2006). 대학생의 학과선택에 따른 부모의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대학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양원경(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0(1), 223-238.
- 박미란, 이지연(2010). 진로성숙에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학교교육의 효과검증. 인간이해. Vol.31 No.1, 2010
- 박범규(2015). 청소년의 애착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애경(2010). 또래관계 증진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분노조절력 및 학교생활 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2007).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은(2007). 여중.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양육태도 및 애착 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두현(2015). 청소년 또래괴롭힘,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자령(2015). 중국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자(2008).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지희(2004).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기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결혼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석영(2012). 중학생의관계형성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경험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3), 77-94.
- 오정아, 남부현(2014).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1(2), 185-209.
- 유영미, 문승태(2002).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8(2), 1-19.
- 이경희, 윤미현(2011). 청소년의 부모요인, 친구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6(1),175-199.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복원(2008). 청소년의 애착요인 및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미, 여태철(2013). 아동의 자기격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2(3), 2013. pp.385-398.
- 이재성(2012). 청소년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15). 초등고학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선(2001).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1991).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 정미경(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나, 노자은(2016).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 정미선(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아(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예(200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 개인, 가정,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조미라(2011). 초등학생 남녀의 외모만족도에 따른 또래관계, 자존감의 차이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형, 최상미, 엄태영(2006). 남녀 청소년의 부모·친구·교사에착과 학교 생활적응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5, 81-97
- 조은복(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은지(2007). 미국청소년의 부모에착과 또래에착 : 미혼모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01-112.

- 진기영(2009).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 요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원(2014). **청소년의 가족환경 및 또래환경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미(200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연구**. 상담학연구, 10(4), 2257-2271.
- 최정미, 김미란(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하성현(2006). **부모,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호순(2016). **청소년의 기질특성과 심리적 가저환경이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슬기(2016).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 교사애착관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석자(2017).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와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erbel, K(2002). **The role of personality, parents and peers in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Adokescence*, 25(1),19-3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1173.
- Betz, N. E. (1998).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ment* 4(1), 1069-0727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6th ed.,).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Administration and use manual.** *CA, CTB/McGraw-Hill.*
- Garvey, C. (1984). **Children's work.**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oyt, K, Evances, R, Mangum, G, Bowen, E. & Gale, D(1977). **Career education in the high school.** *Salt Lake city, Utah: Olympus Publishing. Co.*
- Ladd, G. W. & Kochenderfer, B. J.,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ewis, M & Rosenblum, L.(Eds.).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 **The origins of behavior**(Vol. IV). *New York: Wiley, 1975. p.45*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 Perry, D. G. & Bussey, K. 「**Social development.**」 *NJ: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84. p. 193.*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Trans. M. Gabain. New York: Free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other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Abstract>

**The Effects of the Peer Relationship Perceived by First
Grade High School Students on the Career Maturit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Ko Jeong Hee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ung 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ed effects of self-respect in the effects of peer relationships perceived by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on career proficiency.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is the most important time for peer recognition and acceptance as they choose to be psychologically independent and peerless, instead of relying on their parents. Therefore, based on peer relationships, we want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elf-respect, which are variables related to peer relationships, and to clarify whether self-respect plays an intermediary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relationships and career maturity.

Th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up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 high school freshman's late peer relationship, career maturity, and self-respect?

Research question 2. Is self-esteem a mediated effect in relation to the peer relationship in which a high school freshman is late and career proficiency?

To carry out the above research,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6 to April 11, 2019 on 450 students of three general high schools in Jeju City, one specialized high school in Jeju City's township area, and one specialized high school in Seogwipo City.

As a tool for measuring peer relationship, 'relative scale test' was used by Jung Mi-kyung, who modified, supplemented, and reconstructed peer relationship scale test used by Palker, Asher Ladd, Kochender, and Coleman. In order to measure career proficiency,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roduced the test and used the inspection paper issu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lso, to measure self-respect, Kim Yu-sik, Lee Sol-leaf and Choi Jae-pil used modified and complementary measures. The collected data were used in SPSS 18.0 to analyze the frequency, correlate, and return to the carrier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oposed by Baron and Kenny before the Sobel tes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eer relationship, career proficiency and self-respect of a high school freshman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bearing on each other. Peer relationships were shown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with self-respect, and among the five sub-components of peer relationships, all four sub-components, except competition, indicat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elf-dependence. In addition, the correlation between peer relationships and career proficiency resulted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Second, after analyzing whether self-respecting is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relationship and career mastery, self-respecting is found to have partial match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s and career mastery.

Studies show that self-respect is a mediating effect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late peer and career mastery. This suggests the importance of self-respect by influencing self-respect according to how positively people perceive peer relationships, and self-respect by revealing the action of increasing career maturity.

Th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 basis for education, programs and counseling interventions to improve self-esteem by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peer relationships that students were late to enter high school and expressing that self-respect can be a factor in improving career proficiency.

Key words: peer relations, career maturity, self-respect. mediated effect

설문 1

※ 다음 문항들은 또래관계에 대한 설문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깊게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 혹은 √표를 하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내 친구는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친구는 나를 귀찮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선생님께 꾸지람을 듣고 기분이 나쁠 때 친구는 나를 위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친구는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면 내 친구가 말려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친구는 장난 또는 진짜로 나를 괴롭히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친구는 내가 도와달라고 할때 그 부탁을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친구는 나를 무시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친구는 다른 아이들이 내 욕을 하면 감싸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친구는 내 일이 잘 안될 때 나를 위로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편을 나누어 놀이를 할때 놀이규칙 때문에 내 친구와 다투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 친구에게 비밀 얘기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 친구보다 뭐든 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친구와 나 사이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슬픈 일이 있을 때 내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친구는 내 앞에서 나보다 나은 것처럼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고민이 있을 때 내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9	나는 내 친구보다 공부를 더 잘하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은 나에게 관한 이야기를 내 친구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 친구는 새 학용품을 사면 나에게 자랑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을때 친구에게 그것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 친구는 내 앞에서 뽐내는 행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 친구는 나의 외모(생김새)에 대해 좋게 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놀이를 할 때 내 친구보다 더 잘 하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26	내 친구는 내가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 친구는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 앞에서 그것을 자랑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내 친구는 나의 좋은 점을 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내 친구가 가진 물건보다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내 친구는 나의 감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31	내 친구가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은근히 샘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32	내 친구는 내 일이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와 내 친구는 자주 다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내 친구와 의견(생각)이 잘 맞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내 친구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2

※ 다음 문항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글의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과 같거나 유사하면 “예”란에 ○표 혹은 √를, 다르면 “아니오”란에 ○표 혹은 √를 해 주세요.

번호	문항	예	아 니 오
1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데 별 관심이 없는 편이다.		
2	진로선택은 스스로 하기 보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다.		
3	내 주위 사람들은 나에게 각각 다른 말을 해주므로 직업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4	직업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알아볼 필요가 없다.		
5	나는 진로결정이나 직업선택 시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겠다.		
6	나는 나의 능력이나 조건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7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		
8	나는 선생님이나 선배들의 의견에 따라 나의 진로를 결정할 생각이다.		
9	직업선택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므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10	미래는 불확실하므로, 직업 탐색은 졸업할 무렵에 가서 하는 것이 좋다.		
11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갖고 싶은 직업이 자주 바뀌는 편이다.		
13	나는 나의 장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별로 듣지 않는 편이다.		
14	직업선택은 삶의 방향을 결정지으므로 본인이 하는 것이 좋다.		
15	나는 여러 분야에 흥미가 있어서 나의 진로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		
16	직업선택은 계획에 의해서보다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번호	문항	예	아니오
17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18	나는 수많은 직업 중에서 어느 것이 나에게 적합한지 알지 못한다.		
19	자신의 장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이 좋다.		
20	나는 아직 경험이 없으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결정해 주는 진로를 따르겠다.		
21	중·고등학교 시기에 자기의 직업을 결정하고,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22	나는 월급만 많이 준다면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23	나는 앞으로 취업할 것인가 아니면 진학할 것인가를 부모님의 판단에 맡길 생각이다.		
24	사람은 누구나 학창 시절에 가지고 있던 꿈을 바꾸기 마련이다.		
25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에만 신경 쓰고 직업에 관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6	학교 선택이나 직업선택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어른들이 결정해 주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27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갈 것인지 아니면 취업할 것인지를 이미 정해 놓았다.		
28	진로선택이란 때가 되면 누구든지 하게 마련이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29	나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들은 내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30	나는 유명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과 같은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		
31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직업 준비는 미리 해 두어야 한다.		
32	진로나 직업 선택은 결국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33	나의 진로(취업, 진학)와 관련된 결정은 내 스스로 하려고 한다.		
34	나는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나의 진로에 대해 함께 의논하는 것이 싫다.		
35	나는 부모님이 결정해 주시는 직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36	사람은 각기 자기가 먹고 살 몫은 가지고 태어나므로 직업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설문 3

※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부담없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 혹은 √표를 하세요.

번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뭐든지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닌다.	①	②	③	④	⑤
5	대체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7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남들에게 자랑스러워 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기초 조사를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 학생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는 어떤 유형의 학교입니까?

- ① 남고 ② 여고 ③ 남녀공학

3.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① 제주시 동(同)지역 (예) 아라동, 일도이동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同)지역 (예) 동홍동, 서호동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4. 학생의 학업성적은 어느 수준에 속합니까?

- ① 상 ② 중 ③ 하

5. 고등학교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는 무엇입니까?

- ① 4년제 대학교 진학 ② 전문대학 진학 ③ 취업 ④ 기타 _____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선택사항) 개인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e-mail 또는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설문해석이 가능합니다.(e-mail: _____연락처: _____)